

## 예비 가정교사들의 가정교과에 대한 이미지의 유형

왕석순\*·남수정\*  
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 Preliminary Home Economics Teachers' Image of Home Economics

Wang, Sek-Sun\*·Nam, Su-Jung\*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eonju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what is the image that preliminary teachers seek in Home Econom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images that make people thought based on the Q methodology. Q methodology is a way to understand a person's structure of subjectivity. This study applied Q methodology to clarifying preliminary teachers'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image of Home Economics. 33 Q questions were prepar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were offered to 60 preliminary teachers.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e five types seeking different image with Home Economics: adjustment for society, neglection by prejudice, education for basic element of life, focused on home life, personal mature.

Key Words: 가정교과(Home Economics), 이미지(Image), Q 방법론(Q Methodology)

#### I. 서론

가정교과의 성격이 교육과정 및 시대적 변화와 함께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정교과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고정적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시대변화에 따라 가정과교육의 성격이 전통적인 여성교육으로서의 가정과교육, 수공훈련으로서의 가정과교육, 환경증진을 위해 과학을 응용하는 가정과교육, 가족관리를 위

한 가정과교육, 가족발달에 중심을 둔 가정과교육, 어려움에 처한 집단을 돕는 가정과교육 등의 서로 다른 6가지 성격의 관점으로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채정현·유태명·박미정, 2007).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정과교과에 대한 일반인의 이미지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1세기인 현재에도 전근대적 직업교육 및 수공훈련 또는 전통적 여성 역할을 강조하는 교과라는 인식이 일반인에게 강하게 남아있다(조한혜정, 2000)는 지적에 비추어 본다면 구체적으로 가정과교과의 전반적인 이미지에 대한

1) 교신저자: Nam, Su-jung, 1200 Hyojagong, Wansnagu, Jeonju 560-759, Republic of Korea  
Tel: 063-220-2740 Fax: 063-220-2053 E-mail: bluesj@jj.ac.kr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가정과 교과에 대한 이미지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첫째, 가정교과의 전문가나 가정교과를 배우고 있는 학생집단의 가정교과에 대한 이미지는, 이미지가 진실의 여부를 떠난 개인의 주관성의 결과라 하더라도, 태도의 형성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김동기, 1982), 그들이 가정교과에 대하여 가지는 이미지의 유형화는 그들 집단이 가정교과를 바라보는 시각을 결정하게 된다. 둘째, 가정교과의 성격에 대한 서로 다른 다양한 관점이 논쟁을 야기하는 현재의 가정교육학계에서, 교육수요자인 학생집단이나 예비교사들의 가정교과에 대하여 가지는 교과 이미지에 대한 유형화 작업은, 가정교육의 성격이나 목표, 정체성을 탐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매우 중요하다. 셋째, 가정교과 이미지에 대한 규명은 이미지라는 개념이 개인의 독특한 의미나 가치로 개인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만, 가정교과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깊고 폭넓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인(動因)이 되므로, 가정교과의 정체성, 당위성을 탐구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정교과의 이미지는 가정교과의 성격이나 목표에 대한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거나(이종이, 1997; 왕석순 2003; 박미정, 2006 등), 가정학이나 가정학자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Yankelovich, 1974; LeBleu와 Smith, 1994), '가정생활' 이미지 분석 연구(윤지현, 1997), 또는 가정교과와 연계된 초등 실과 교과의 이미지 연구(김용익, 2002; 김용익, 2003) 등과 같이 아직은 선행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초기단계의 개념이다. 또한 이미지는 진실의 여부를 떠난 개인의 주관성(김동기, 1982)에 기인하기 때문에 획일화된 잣대를 통해 개인의 이미지를 측정하는 데에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교과에 대한 이미지 연구의 시도적 차원으로서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Q방법론을 사용하여 가정교과에 대한 이미지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미지는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주관성 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

므로, 개인의 주관성 체계에 접근하는 객관화된 도구로 개개인마다 다른 주관성 구조에 따른 유형별 이해와 설명을 가능하도록 하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정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아 일반인과는 어느 정도 구별되지만, 동시에 아직은 전문가라고 판단할 수 없는 예비교사들인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가정과 예비교사들인 이들의 가정교과의 이미지는 과거의 총합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되므로, 사범대학에서 받은 가정교육의 이미지에 대한 결과를 반영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미지에 대한 시도적 연구로서 전문가집단의 폐쇄된 지식이 아니라 개방된 관점에서 가정교과의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주관성 체계에 접근하는 객관화된 도구인 Q 방법론을 사용하여 가정교과에 대한 이미지를 유형화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둘째,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가정교육의 성격과 목표를 탐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정교육의 성격과 목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논쟁을 가져오는 현재의 상황에서, 교육수요자인 예비교사들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가정교육의 성격이나 독자성을 탐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이미지의 개념

이미지(image)란 심상, 표상, 개념, 관념, 상징 유형 등의 동의어로 표현되며 어떤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느낌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류철선, 1996). 대부분의 이미지는 사람이 과거에 겪은 경험의 총합적인 결과로서

형성되는데, 인간 행위는 지식과 정보 보다는 인간 자신이 지각하는 이미지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김동기, 1982). 구체적으로 인간은 “진실인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 반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교과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의 이미지는 교과 성격이나 목표와 같은 본질과 관련한 진실 여부를 떠나 가정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정교과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문학, 음악, 회화, 무용 등의 예술 분야와 광고 등의 언론 분야를 중심으로 인식론, 형이상학, 신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사회학 등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이미지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이미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 의미는 어떤 대상을 상징으로 나타낸 표현물(메세지)로 사용된 경우로 심볼이나 언어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두 번째 의미는 머릿속에 그린 대상에 대한 그림(의식)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의식, 태도, 신념, 가치 등의 말로써 표현될 수 있다(이규완, 2002).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이미지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미지(image)라는 말은 ‘정신적으로 그림을 그리는’이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imaginari’에서 비롯된 용어로서 감각적, 직관적으로 주어지는 구체적인 상을 의미한다(김용익, 2003). 이미지는 ‘기억이나 상상, 또는 외적 자극에 의해서 의식의 표면에 나타난 직관적 표상’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에서 기억이란 과거 경험의 산물을 의미하며 상상이란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와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럴듯

한 세계를 그려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지란 용어를 사용한 W. Lippmann(1992)은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갖는 감각적 영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가시적인 세계에 대한 신뢰할 만한 관념적 그림을 자기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규완(2002)은 ‘우리는 세상일에 실제(객관적 현실)나 메시지(상징적 현실)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미지(주관적 현실)에 근거해 반응한다. 이미지는 세상을 보는 눈이자 세상을 평가하는 잣대로 정의내리고 있다. 김동기(1982) 또한 이미지란 어떤 특정의 사물이나 사항에 대해 가지는 기억, 인상 및 태도 등의 총체로서 특정의 사물이나 사항에 대해 특정의 감정을 가지게 하는 영상이라고 하였다.

결국 이미지라는 개념은 과거에 겪은 경험의 종합적인 결과로서 형성되며, 인간의 행동은 사실적인 지식과 정보 보다는 인간이 지각하는 이미지에 의해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이미지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특정교과에 대한 교사의 이미지는 학생들의 이미지를 비롯하여 학부모 더 나아가서는 일반인에 대한 이미지에도 많은 파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교과 이미지의 실태를 미래의 가정교과 교사로 활동하게 될 예비교사들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 2. 가정교과 이미지에 대한 선행 연구

가정교과의 이미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표 1> 이미지의 정의

| 연구자                      | 이미지의 정의   |
|--------------------------|---|
| Kotler(1981)             |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인상의 총체                              |
| Lawson & Baud-Body(1997) | 임의의 물건이나 장소에 대해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지식, 인상 상상력, 감정 등 모든 것   |
| 김동기(1980)                |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시각 상, 기억, 호감, 인상, 평가 및 태도 등의 총칭           |
| 이훈(1990)                 | 특정 대상의 외적 형태에 대한 인위적인 모방이나 재현                                 |
| 김은영(1991)                | 우리 나름의 사고, 취향에 따라 편집되어 만들어진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의 덩어리, 특이한 감정, 고유한 느낌. |

<출처: 김용익(2003).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의 눈에 비친 실과교과의 이미지.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6(1), p. 62>

AHEA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Yankelovich(1974)의 연구, LeBleu와 Smith(1994)의 연구 등이 대표적이며 국내에서는 윤지현(1997)이 ‘가정생활’ 이미지를 분석하였으며, 김용익(2002, 2003)의 경우 중학생과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실과교과의 이미지를 분석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Yankelovich(1974)의 연구결과에서는 가정학자를 행동하는 사람(do-er), 과제지향적인 사람(task-oriented), 수행자(performer)로 간주하였으며 직업과 관련이 없으며 기능에 관심을 가지고 수공훈련에 큰 의미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Yankelovich의 연구에서는 가정학은 정체성이 없으며 전문성이 결여된 것으로 결론지으며 가정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정학의 교육목적이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기술지향적인 성격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에게 삶에 대한 준비를 시켜야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14명의 가정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Blaeu와 Smith(1994)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이 가정학에 대해서 전통적인 견해를 보임으로써 정형화된 가정교과교육의 특징이 지적되었다. 구체적으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성역할관련 활동들에 대한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학에 대한 현재의 인식과 정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가정 교과가 개인 혹은 가족이든지, 출생부터 죽을 때 까지,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기 위한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사용되는 실제적인 지식의 분야라는 결론을 얻고 있다.

직접적으로 가정교과에 대한 이미지는 아니지만 가정생활 이미지에 대한 윤지현(1997)의 연구에서는 가정에 대한 이미지는 따뜻함, 휴식 및 편안함, 공유, 사회의 기본 단위, 갈등 및 구속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비슷하게 가정생활에 대한 이미지는 화목, 공유, 갈등, 휴식 및 안정감, 반복, 사회의 기본 단위, 책임 및 의무, 재생 등의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가정생활에 대한 바람직하며 이상적인 이미지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정생활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익의 경우 중학생(2002)과 예비교사(2003)들을 대상으로 실과교과의 이미지를 분석하였는데, 먼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2002)에서는 실과교과의 이미지는 재미있고, 가치 있으며 실천적이고 협동적이며 실용적이긴 하지만 매력적이지 못하고 단순하고 시끄러운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비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2003)에서는 실과교과의 이미지가 재미있고, 동적이며, 생산적이고 협동적이며 실용적이지만 진부하고 회미하고 복잡하고 시끄럽다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고찰 결과를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는 가정교과에 대한 이미지를 직접적인 연구 주제로 수행한 연구보다는 가정교과의 모학문인 가정학이나 가정학자, 또는 가정학의 중심 대상인 가정생활에 대한 이미지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가정학을 모학문으로 하는 가정교과에 대한 이미지는 가정학이나 가정학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Yankelovich(1974)의 경우 가정학자에게 수공훈련을 강조하고, LeBleu와 Smith(1994)는 전통적인 여성교육과 가정관리의 측면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가정학의 이미지는 여전히 가정교과의 이미지에 반영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가정교과의 주요 대상인 가정생활에 대한 이미지 연구결과(윤지현, 1997)에서는 가정의 기본적인 편안함의 이미지와 공유, 따뜻함을 강조하고 있어서, 가정교과에서 물적 대상의 관리에 대한 이미지 외에 인간적 차원의 또다른 이미지가 교과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을 시사하고 있다. 가정교과와 연계된 초등실과에 대한 김용익(2002, 2003)의 연구에서는 재미있고 동적이며 생산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어서, 가정교과의 이미지에 이러한 이미지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이상의 선행 연구를 고찰하면, Yankelovich(1974)의 경우 가정학의 정체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LeBleu와 Smith(1994)는 가정학이 아직 여성교육측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므로, 가정교과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부정적인 측면 또한 강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윤지현(1997)의 연구는 가정교과의 주요 연구 대상인 가정생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지만 전반적인 가정교과교육에 대한 이미지로 연결시키기 어려우며, 김용익(2002, 2003)

의 경우 실과교육에 대한 이미지를 형용사에 한정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미지를 형상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3. 가정교과 이미지 연구를 위한 Q 방법론의 특성

가정교과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천하므로, 이에 대한 시도적 연구로서 양적인 조사를 수행하기 보다는 질적인 자료의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데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정교과 이미지에 대한 질적인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Q-방법론(주관성 연구방법)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Q-방법론은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내의 의미성 또는 중요성의 차이를 다루는 주관성을 강조하는 질적조사 연구방법(김홍규, 1990)이다. Q 방법론은 기존의 과학 패러다임과는 크게 구별되는 방법론으로, 기존의 과학 패러다임이 갖는 과학정신과 과학철학, 그리고 과학행위의 모든 관행과 구별되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Q 방법론은 Stephenson이 1935년에 창안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행위자의 관점에서 현상에 대한 주관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법이다(Pnina, Martin, 2007). Q 방법론은 변수의 요인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요인화 하는 것으로 고유의 준거를 가진 개인의 주관성에 따른 현상에 대한 반응 유형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김범중, 1999). Q 방법론은 Q-모집단 이론과 요인분석 방법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Q-모집단이란 각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주관적 진술들로 표현되며 한 문화 안에서 공유되는 의견이나 느낌의 총체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모든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송미승·한경임·박철수, 2003). 따라서 의사전달의 주관적 형태 안에서 모든 메시지, 개념, 관념, 아이디어, 제스처, 대상에 관하여 Q-모집단이 존재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은 각각의 Q-모집단을 갖는다(김홍규, 1990). 그리고 Q-모집단은 크게 문헌연구와 면담방법에 의한다. 그러므로 Q-방법론에서의 진술문은 반드시 언어적이지 않아도 무방하며 응답자의 말이나 자연스럽게 서면화된 진술문들에서 추출된다. 여기서 면담은 ‘자

아-참조적’인 원칙에 가장 부합되는 것이지만, 면담이 가능하지 않을 때 서면으로 기록된 진술문에서 수집할 수 있으며 어느 한 쪽이 본질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Dennis, 1986; McKedwn, Thoma, 1988).

사회 안에서 인간은 특수한 의미와 적합성의 구조를 가지므로 인간의 주관성을 배제하여서는 인간의 본질과 사회현상을 제대로 연구할 수 없으며, 사회적 현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의미적으로 구성되어지기 때문에 의미의 해석을 통한 이해의 방법이 필요하다(최협, 1991). 따라서 Q-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적 속성을 그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설명’하는 방법이 아닌 ‘내부로부터 이해’하는 접근방법을 사용한다(김홍규, 1990).

가정교과 이미지는 가정교과에 대한 개개인의 독특한 의미나 가치가 내재되어 있으며, 개인의 지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정교과에 대한 태도, 가치관과 주관성은 개인의 의식구조 속에 깊숙이 존재하면서 자신과의 교섭을 통하여 가정교과교사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정교과의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정교과 이미지의 주관성을 파악하는 연구를 시도하려 하며, 이는 인간행위의 주관성 강조와 행위자의 관점을 중심하는 Q-방법론의 철학과 일치된다. Q-방법론에서는 현상을 연구할 때 연구자의 관점에서 연구를 시도하기 보다는 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 그리고 상호작용을 중시한 연구를 전제하고 있다. 가정교과의 이미지는 개인이 가정교과에 대해 가지는 주관성 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속성을 지니므로, 가정교과의 이미지를 연구자의 폐쇄된 지식이 아닌 개방된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Q- 방법론은 연구자의 가정이 아닌 행위자의 관점에서 출발하며, 개개인마다 다른 주관성 구조에 따른 유형별 이해와 설명이 가능(송미승·한경임·박철수, 2003)하므로, 가정교과 이미지에 대한 주관적 유형의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교과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가정교과 교사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적, 정책적 대안 제시에 적절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론

#### 2) Q 표본 설계

#### 1. 표본설계

##### 1) 연구대상: P 표본

Q 방법론은 사람들 사이에서 갖는 평균적 의미나 개인 간의 차이를 연구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하고 일반화하는 가설연역적 방법이 아니라, 가설을 발견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즉 개인 간의 차이(interindividual difference)가 아니라, 한 개인 내에서 항목의 중요성 차이(intra-individual difference in significance)를 다루는 것이므로 P 표본(사람)의 수에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김홍규, 1992). Stephenson은 한 사람을 대상으로 Q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오히려 p 표본 수가 커지면 통계적 문제가 야기됨으로 인해 Q 방법론은 소표본(small sample doctrine)에 근거하고 있다(오세정·김홍규, 200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예비가정과 교사의 가정교과의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북지역 소재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학생 총 30명에게 가정교과과 이미지에 대한 Q-카드 분포도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Q 방법론을 적용하는 연구의 타당성은 Q 표본의 설계가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인터뷰와 문헌고찰 등의 경로를 통해 Q 표본을 설계함으로써 표본의 포화상태를 높여야 한다. 비록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완전한 포화상태를 이루는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모든 자료와 경로를 활용함으로써 포화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Q 표본을 구성하기 위해 먼저 선행연구 등의 관련문헌 고찰과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고찰은 가정교과와 관련된 논문과 서적 등의 출판물을 내용 분석하여 가정교과 이미지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였다. 이와 함께 문헌고찰에서 추출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한 개방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가정교육과에 재학 중이며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 60명을 대상으로 2007년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정교과의 이미지를 개방형 형태의 설문지를 통해 조사한 후 이들의 응답을 분류하여 추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89개의 항목이 추출되었다.

추출한 89개의 항목을 2인의 연구자가 교대로 여러 번 반복하여 읽고 주제별로 공통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진술문을 통합하였으며, 공동의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진술문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결정된 진술문의 내용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공자 3인의 자문을 거쳐 추가적인 범주화를 수행한 결과 총 33개의 진술문이 선정되었다. 구체적인 진술문의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가정교과의 이미지에 대한 Q 표본

1.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교과
2. 삶의 기본 바탕이 되는 능력을 제공하는 교과
3. 의식주, 소비, 가족관계에 대한 과학적 사고를 갖추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교과
4.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과
5. 일과 직업생활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도록 해주는 교과
6. 가정생활과 관련된 직업생활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
7. 인간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교과
8. 개인, 가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
9. 가정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하는 교과
10. 가정과 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과
11. 가족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가정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교과
12.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인성교육 교과
13. 인간을 성숙하게 해 주는 교과
14. 인간관계에서의 유연성을 길러주는 교과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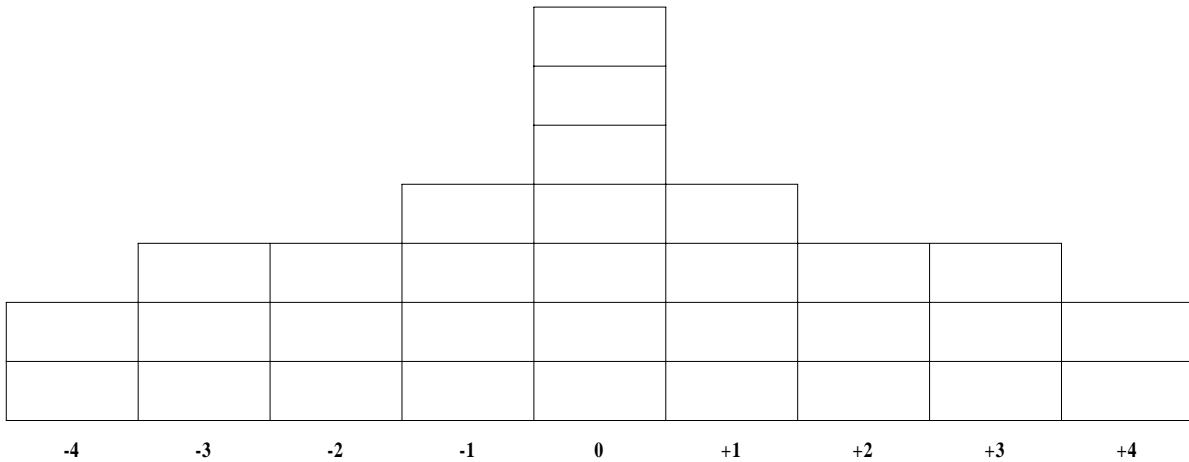
15. 21세기 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교과
16. 다양한 상황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교과
17. 가족 및 청소년의 개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과
18. 배운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과
19. 직면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사고하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과
20. 미래 생활에 대비할 수 있는 생활실계의 능력을 키우는 교과
21. 교육내용이 진부하여 변화가 필요한 교과
22. 교육내용의 깊이와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과
23. 너무 다양한 내용을 담아 복잡하고 산만한 교육구성을 가지는 교과
24. 교과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지 못한 교과
25. 누구나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부담없는 쉬운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
26. 입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소외 받는 교과
27. 취업과 연결이 적은 교과
28. 사회적 편견에 제일 상처받는 교과
29. 생활의 다양한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과
30. 지식보다는 실천이 중요시 되는 교과
31. 이론, 실기 모두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교과
32. 여자, 아내, 엄마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는 교과
33.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꼭 필요한 교과

2. 측정 및 분석

1) Q 분류

본 연구에서는 33개의 진술문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0을 기준으로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으로부터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까지 9 단계로 구분하여 유사정규분포의 형태인 분류표에 할당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3개의 진술문을 Q 카드로 만들어 응답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자

신의 생각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였다. 응답자에게 각각의 Q 카드 내용을 보고 0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으로부터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까지 -4에서 +4까지 9단계로 나누어진 유사정규분포의 분포도에 분류하도록 하였다. 각 Q카드를 분류한 후 가장 동의한 진술문과 가장 동의하지 않은 진술문에 대해 그 이유 및 그렇게 분류한 전체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질문을 개방형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Q 분포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Q 표본 분포도(Q-sample distribution)

<표 3> 유형별 아이겐값과 변량

|      | 제 1 유형  | 제 2 유형 | 제 3 유형 | 제 4 유형 | 제 5 유형 |
|------|---------|--------|--------|--------|--------|
| 아이겐값 | 10.1345 | 3.2665 | 2.1094 | 1.7950 | 1.6151 |
| 변량   | .3378   | .1088  | .0703  | .0598  | .0538  |
| 누적변량 | .3378   | .4467  | .5170  | .5768  | .6307  |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QUANL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인자 분석방법을 통해 Q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해 Eigen value 1.0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의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켜 산출된 결과 중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되는 유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며 제 3 유형과 제 5 유형이 .71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제 1 유형과 제 5 유형이 -.046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윤은자(1996)에 따르면 Q 방법론에서 요인간의 상관관계는 양적조사 연구에서의 요인분석과 다르게 각 요인간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관계 계수의 높고 낮음에 따른 요인 추출방법의 논란은 제기되지 않는다.

총 30명의 대상자 중 제 1 유형에 10명, 제 2 유형에는 3명, 제 3 유형에는 9명, 제 4 유형에는 4명, 제 5 유형에는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유형별 인자가중치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IV. 연구결과

1. 가정교과 이미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

가정교과에 대한 이미지의 주관적 인식 유형에 대해 Q 요인분석 한 결과 5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각 유형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제 1 유형의 변량이 33.78%, 제 2 유형은 10.88%, 제 3 유형은 7.03%, 제 4 유형은 5.98%, 제 5 유형은 5.38% 으로 전체변량은 63.07%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아이겐값과 변량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다섯 가지 유형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4>와 같으

2. 가정교과 이미지에 대한 유형별 특성

예비교사들의 가정과 교과 이미지의 유형을 분석, 기술하기 위해서 우선 각 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을 중심으로 유형별로 기술하였고 또한 개별 진술항목에 대한 특정 유형의 표준 점수와 나머지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와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 설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유형의 특성을 좀 더 잘 드러내기 위해 연구대상자들의 Q 분류 시 적극 찬성과 적극 반대에 분류한 진술문 선택 이유를 고려하였다. 각 유형의 특성을 함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가정

<표 4> 유형별 상관계수

|        | 제 1 유형 | 제 2 유형 | 제 3 유형 | 제 4 유형 | 제 5 유형 |
|--------|--------|--------|--------|--------|--------|
| 제 1 유형 | 1.00   |        |        |        |        |
| 제 2 유형 | .092   | 1.00   |        |        |        |
| 제 3 유형 | .560   | .197   | 1.00   |        |        |
| 제 4 유형 | -.046  | .268   | .119   | 1.00   |        |
| 제 5 유형 | .691   | .107   | .712   | -.079  | 1.00   |



<표 5>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유형별 인자 가중치

| 유형     | ID | 학년 | 성별  | 평균평점 | 고교시절<br>이수계열 | 고등학교재학시<br>가정과학 선택 여부 | 인자<br>가중치 |
|--------|----|----|-----|------|--------------|-----------------------|-----------|
| 제 1 유형 | 1  | 4  | 여자  | 4.0  | 이과           | 비이수                   | 1.4553    |
|        | 5  | 4  | 여자  | 3.8  | 이과           | 이수                    | 1.3416    |
|        | 13 | 4  | 여자  | 4.0  | 이과           | 이수                    | 1.3643    |
|        | 15 | 4  | 여자  | 3.5  | 이과           | 이수                    | 1.0686    |
|        | 17 | 4  | 여자  | 3.0  | 이과           | 이수                    | .7050     |
|        | 21 | 4  | 여자  | 3.1  | 문과           | 비이수                   | 1.4116    |
|        | 22 | 4  | 여자  | 3.5  | 이과           | 비이수                   | 2.0242    |
|        | 24 | 4  | 여자  | 3.0  | 문과           | 비이수                   | .9017     |
|        | 29 | 4  | 남자  | 3.8  | 이과           | 비이수                   | 1.0125    |
|        | 30 | 4  | 여자  | 4.4  | 문과           | 비이수                   | 1.2874    |
| 제 2 유형 | 6  | 4  | 여자  | 3.5  | 이과           | 비이수                   | .6638     |
|        | 8  | 4  | 여자  | 3.9  | 실업계          | 이수                    | 3.3005    |
|        | 19 | 4  | 여자  | 3.9  | 이과           | 비이수                   | 1.1924    |
| 제 3 유형 | 2  | 4  | 여자  | 3.9  | 실업계          | 비이수                   | .9771     |
|        | 7  | 4  | 여자  | 3.6  | 문과           | 비이수                   | .6685     |
|        | 9  | 4  | 여자  | 3.5  | 문과           | 비이수                   | 1.4782    |
|        | 10 | 4  | 여자  | 3.0  | 이과           | 비이수                   | 1.3558    |
|        | 11 | 4  | 여자  | 3.5  | 문과           | 비이수                   | .5169     |
|        | 12 | 4  | 여자  | 4.0  | 문과           | 이수                    | .8557     |
|        | 18 | 4  | 여자  | 3.5  | 문과           | 이수                    | 1.3348    |
|        | 26 | 4  | 여자  | 3.5  | 문과           | 비이수                   | .8544     |
| 27     | 4  | 여자 | 3.5 | 이과   | 비이수          | .7704                 |           |
| 제 4 유형 | 4  | 4  | 남자  | 3.8  | 이과           | 비이수                   | .5361     |
|        | 20 | 4  | 여자  | 3.5  | 이과           | 이수                    | 1.2721    |
|        | 23 | 4  | 여자  | 3.6  | 이과           | 이수                    | 2.0885    |
|        | 28 | 4  | 여자  | 3.8  | 이과           | 비이수                   | .9213     |
| 제 5 유형 | 3  | 4  | 여자  | 3.2  | 문과           | 비이수                   | .9309     |
|        | 14 | 4  | 여자  | 3.5  | 문과           | 이수                    | .5581     |
|        | 16 | 4  | 여자  | 3.3  | 문과           | 이수                    | .7868     |
|        | 25 | 4  | 남자  | 3.0  | 이과           | 비이수                   | 1.0071    |

과 교과이미지 유형의 명명은 분석내용을 토대로 Q 방법 전문가 1인, 가정과교과교육 전문가 1인이 함께 최종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각 유형을 특성을 명명하였다.

1) 제 1 유형: 사회의 적응을 위한 교과

제 1 유형은 가정교과를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관련 능력 및 기술을 배양하며,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써의 자질을 양성해 주는 교과라

는 측면에서 “사회적 적응을 위한 교과”로 명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가정교과를 통해 개인이 사회의 성숙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능력이 길러지며, 미래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가정교과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아 제 1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응답자 22는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현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교과”라고 응답하였으며, 또한 비교적 인자 가중치가 높은 응답자 21은 “가정교과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데 요구

되는 창의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교과이며, 창의력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맞는 개성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 1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이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문항은 “ 21세기 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교과”, “개인, 가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 “가정과 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과”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가장 낮은 동의를 받은 문항은 “교과내용의 깊이와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과”, “교과로서 정체성을 구축하지 못한 교과“, “누구나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부담 없는 쉬운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 등 전문성 결여와 관련된 문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제 1 유형의 표준점수가 ±1.00이상인 항목들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2) 제 2 유형: 편견으로 소외된 교과

제 2 유형은 가정교과가 다른 교과와 비교하여 입시와 관련이 적고 취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이 있는 교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편견으로 소외된 교과”로 명명하였다.

제 2 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인자가

중치가 가장 높은 응답자 6은 “고등학교 입시에 반영되는 비율이 적은 만큼 실제로 고등학교 때도 가정 교과 시간에 자율학습을 했던 기억이 많아 상대적으로 가정교육과에서 가정 임용을 준비하는 데에 위축감이 들기도 한다.....그리고 사람들도 가정주부들의 일을 배우는 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응답자 8은 “가정교육은 밥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과라는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종종 상처 받는다”라고 응답하고 있어, 가정교과가 여성에게 편향된 교육과정이라는 전통적인 인식으로 인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며, 입시와 관련해서도 그 비중이 매우 낮아 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들 또한 가정 교과의 이미지를 부정적인 측면 즉 단순하게 밥하고 빨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교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제 2 유형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문항은 “취업과 연결이 적은 교과”, “입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소외받는 교과”, “사회적 편견에 제일 상처받는 교과”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가장 낮은 지지를 받은 문항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교과”, “너무 다양한 내용을 담아 복잡하고 산만한 교육구성을 가지는 교과”, “인간관계에서의 유연성을 길러주는 교과”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제 2유형의 표준점수가

<표 6> 제 1 유형의 대표적인 진술문과 표준점수

| 구분           | 번호 | 진술문  | 표준점수  |
|--------------|----|--|-------|
| 강하게 동의하는 진술문 | 15 | 21세기 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교과      | 1.42  |
|              | 8  | 개인, 가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 | 1.28  |
|              | 10 | 가정과 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과               | 1.23  |
|              | 18 | 배운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과           | 1.10  |
|              | 3  | 의식주, 소비, 가족관계에 대한 과학적 사고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교과  | 1.00  |
| 강하게 반대하는 진술문 | 28 | 사회적 편견에 제일 상처받는 교과                         | -1.06 |
|              | 26 | 입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소외 받는 교과                  | -1.19 |
|              | 21 | 교육내용이 진부하여 변화가 필요한 교과                      | -1.45 |
|              | 23 | 너무 다양한 내용을 담아 복잡하고 산만한 교육구성을 가지는 교과        | -1.67 |
|              | 25 | 누구나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부담없는 쉬운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    | -1.85 |
|              | 24 | 교과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지 못한 교과                      | -1.94 |
|              | 22 | 교육내용의 깊이와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과                     | -2.15 |

<표 7> 제 2 유형의 대표적인 진술문과 표준점수

| 구분           | 번호 | 진술문  | 표준점수  |
|--------------|----|--|-------|
| 강하게 동의하는 진술문 | 27 | 취업과 연결이 적은 교과                              | 1.99  |
|              | 26 | 입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소외 받는 교과                  | 1.83  |
|              | 28 | 사회적 편견에 제일 상처받는 교과                         | 1.74  |
|              | 8  | 개인, 가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 | 1.20  |
|              | 31 | 이론, 실기 모두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교과                   | 1.20  |
| 강하게 반대하는 진술문 | 19 | 직면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사고하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과     | -1.00 |
|              | 15 | 21세기 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교과      | -1.02 |
|              | 7  | 인간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교과    | -1.16 |
|              | 4  |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과           | -1.19 |
|              | 22 | 교육내용의 깊이와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과                     | -1.35 |
|              | 30 | 지식보다는 실천이 중요시 되는 교과                        | -1.41 |
|              | 14 | 인간관계에서의 유연성을 길러주는 교과                       | -1.45 |
|              | 23 | 너무 다양한 내용을 담아 복잡하고 산만한 교육구성을 가지는 교과        | -1.48 |
|              | 16 | 다양한 상황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교과                  | -1.60 |

±1.00이상인 항목들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3) 제 3 유형: 삶의 기본 요소를 알려주는 교과

제 3 유형은 가정교과가 삶의 기본적인 요소를 가르쳐 주는 교과로 다양한 경험의 습득,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등과 관련된 교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삶의 기본 요소를 알려주는 교과”로 명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제 3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응답자 9는 “가정교과는 일상생활에 대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응답자 7은 “다른 교과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실습을 하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교과”라고 응답하고 있다. 응답자 12는 “인간생활의 거의 모든 면을 다루는 교과이며,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응답하고 있어, 제 3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가정교과가 생활의 모든 부분 또는 가정과 관련한 삶의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었다.

제 3 유형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항목들을 살펴보면 “생활의 다양한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과”,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꼭 필

요한 교과”, “삶의 기본 바탕이 되는 능력을 제공하는 교과”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지지를 받은 항목들은 “교육내용의 깊이와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과”, “교육내용이 진부하여 변화가 필요한 교과”, “교과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지 못한 교과”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제 3 유형의 표준 점수가 ±1.00 이상인 항목들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4) 제 4 유형: 가정생활을 강조하는 교과

제 4 유형은 전통적으로 가정교과가 담당하고 있었던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기술과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이러한 가정생활의 기술이 여성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한 분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가정교과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가정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술과 능력을 배양하는 교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생활을 강조하는 교과”로 명명하였다.

제 4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응답자 23은 “21세기 사회에서 남녀구분 없이 양성성을 갖춘 인간이 필요하며..... 현재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어 가고

<표 8> 제 3 유형의 대표적인 진술문과 표준점수

| 구분           | 번호 | 진술문                                     | 표준점수  |
|--------------|----|---|-------|
| 강하게 동의하는 진술문 | 29 | 생활의 다양한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과 | 2.6   |
|              | 33 |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꼭 필요한 교과                 | 1.55  |
|              | 2  | 삶의 기본 바탕이 되는 능력을 제공하는 교과                | 1.20  |
|              | 32 | 여자, 아내, 엄마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는 교과  | 1.11  |
|              | 11 | 가족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가정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교과   | 1.05  |
| 강하게 반대하는 진술문 | 25 | 누구나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부담없는 쉬운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 | -1.34 |
|              | 23 | 너무 다양한 내용을 담아 복잡하고 산만한 교육구성을 가지는 교과     | -1.49 |
|              | 24 | 교과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지 못한 교과                   | -1.76 |
|              | 21 | 교육내용이 진부하여 변화가 필요한 교과                   | -1.90 |
|              | 22 | 교육내용의 깊이와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과                  | -2.13 |

있기 때문에 가정교과가 더 필요하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 4는 “가정교과가 직업을 선택할 때 유용하지는 않지만, 가정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다”라고 응답하고 있어 역시 가정교과가 취업과의 연결은 적지만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제 4 유형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항목들을 살펴보면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꼭 필요한 교과”, “가족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가정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교과”, “개인, 가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지지를 받은 항목들은 “21세기 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교과”, “누구나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부담없는 쉬운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교과”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제 4 유형의 표준점수가 ±1.00 이상인 항목들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5) 제 5 유형: 개인적 성숙을 강조하는 교과

제 5 유형은 가정교과가 개인의 성숙의 바탕이 되는 기

<표 9> 제 4 유형의 대표적인 진술문과 표준점수

| 구분           | 번호                                    | 진술문  | 표준점수  |
|--------------|---------------------------------------|--|-------|
| 강하게 동의하는 진술문 | 33                                    |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꼭 필요한 교과                          | 2.10  |
|              | 11                                    | 가족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가정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교과            | 1.95  |
|              | 8                                     | 개인, 가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       | 1.36  |
|              | 3                                     | 의식주, 소비, 가족관계에 대한 과학적 사고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교과        | 1.29  |
|              | 23                                    | 너무 다양한 내용을 담아 복잡하고 산만한 교육구성을 가지는 교과              | 1.12  |
|              | 27                                    | 취업과 연결이 적은 교과                                    | 1.07  |
| 강하게 반대하는 진술문 | 13                                    | 인간을 성숙하게 해 주는 교과                                 | -1.12 |
|              | 32                                    | 여자, 아내, 엄마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는 교과           | -1.36 |
|              | 17                                    | 가족 및 청소년의 개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과 | -1.50 |
|              | 16                                    | 다양한 상황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교과                        | -1.52 |
|              | 25                                    | 누구나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부담 없는 쉬운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         | -1.53 |
| 15           | 21세기 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교과 | -1.88  |       |

본적인 자질을 배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격적인 수양과 바른 인성 그리고 위기대처 능력까지를 포함한 개인발달의 기초가 되는 교과로 보기 때문에 “개인적 성숙을 강조하는 교과”로 명명하였다.

제 5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응답자 14는 “가정교과교육은 사회적으로나 변화하는 가정의 측면에서 바른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과라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응답자 25 또한 “가정교육이야 말로 전문성이 크게 필요한 교과라고 생각한다....학생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주는 교과이고, 가정교과교육의 다양한 면모를 배우면서 인간의 삶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주고 방향을 정하게 도움을 주는 과목이다”라고 응답하고 있어 가정교과가 인간적 성숙의 기본이 되는 교과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제 5 유형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인성교육 교과”, “가족 및 청소년의 개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과”, “가정과 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과”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지지를 받은 항목들은 “교과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지 못한 교과”, “너무 다양한 내용을 담아 복잡하고 산만한 교육구성을 가지는 교과”, “가정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하는 교과”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제 5 유형의 표준점수가 ±1.00이상의 항목들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정교과교육의 성격과 정체성, 그리고 미래 방향을 탐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교과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인 교과의 이미지를 유형화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인의 주관적 인식 경향을 객관화하여 유형화할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인 Q방법론을 활용하여 예비가정교과교사를 대상으로 가정교과 이미지 유형화 하였다. 그 결과 가정교과에 대한 이미지의 유형을 총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사회의 적응을 위한 교과’로서 인식하는 집단이다. 이 유형은 가정교과를 통해 개인이 사회의 성숙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능력이 길러지며, 미래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가정교과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집단이다. 이 유형의 경우, 가정교과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창의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교과로, 이러한 사회 적응능력의 양성이 가정교과의 중요한 이미지로 생각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편견으로 소외된 교과’로서 인식하는 집단이다. 이 유형은 가정교과는 다른 교과와 비교할 때 입시와 관련이 적고 취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직도 가정주부들의 일을 배우는

<표 10> 제 5 유형의 대표적인 진술문과 표준점수

| 구분           | 번호 | 진술문  | 표준점수  |
|--------------|----|--|-------|
| 강하게 동의하는 진술문 | 12 |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인성교육 교과                         | 1.86  |
|              | 17 | 가족 및 청소년의 개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과 | 1.86  |
|              | 10 | 가정과 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과                     | 1.40  |
|              | 13 | 인간을 성숙하게 해 주는 교과                                 | 1.40  |
|              | 15 | 21세기 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교과            | 1.40  |
| 강하게 반대하는 진술문 | 20 | 미래 생활에 대비할 수 있는 생활실계의 능력을 키우는 교과                 | -1.40 |
|              | 22 | 교육내용의 깊이와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과                           | -1.40 |
|              | 9  | 가정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하는 교과                 | -1.40 |
|              | 23 | 너무 다양한 내용을 담아 복잡하고 산만한 교육구성을 가지는 교과              | -1.86 |
|              | 24 | 교과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지 못한 교과                            | -1.86 |

교과로 인식하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는 교과로 생각하는 집단이다.

세 번째 유형은 ‘삶의 기본요소를 알려주는 교과’로 인식하는 집단이다. 가정교과가 삶의 기본적인 요소를 가르쳐 주는 교과로 다양한 경험의 습득, 빠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등과 관련된 교과로 인식하는 집단으로, 인간 생활의 거의 모든 면을 다루는 교과로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과로 생각하는 집단이다.

네 번째 유형은 ‘가정생활을 강조하는 교과’로 인식하는 집단이다. 이 집단의 경우 가정교과를 전통적으로 가정교과가 담당하고 있었던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기술과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이러한 가정생활의 기술이 여성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한 분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가정교과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술과 능력을 배양하는 교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생활을 강조하는 교과”로 명명하였다. 특히 제 4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21세기 사회에서 남녀구분 없이 양성성을 갖춘 인간이 필요하며.....현재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가정교과가 더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고, 또 다른 응답자는 “가정교과가 직업을 선택할 때 유용하지는 않지만, 가정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다”라고 응답하고 있어 역시 가정교과가 취업과의 연결은 적지만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다섯 번째 유형은 ‘개인적 성숙을 강조하는 교과’로 생각하는 집단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집단은 가정교과가 개인의 성숙의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자질을 배양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본적인 인격수양과 바른 인성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까지를 포함한 개인발달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능력을 키우는 교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Thomas(1986)는 가정교과는 시대에 따라서 전통적 여성 역할, 수공훈련, 과학지식의 응용, 가족관리, 가족발달, 어

려움에 처해 있는 집단을 도와주는 교육으로서의 견해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채정현·유태명·박미정, 2007). 본 연구에서 유형화한 가정교과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비교 관찰하면, 가정교육의 초기 견해들에 해당하는 전통적 여성 역할, 수공훈련과 같은 가정교육의 견해는 21세기 가정교육의 이미지에 오히려 ‘편견으로 소외받는 교과’란 이미지로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초기의 가정교과의 견해가 가정교과의 이미지에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하여 입시와 취업에 장애요소가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 여성 역할, 수공훈련으로서의 가정교육의 견해를 비판하는 것으로 이미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또 다른 집단은 가정교과가 가정생활 영위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배양하는 교과란 인식에 여전히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렇게 인식하는 집단은 가정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실습이 과거의 여성 교육의 차원이나 수공훈련의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기본능력의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가정교과에서 다양한 실습교육이 생활의 자립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남녀공통의 교양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인식은 ‘삶의 기본요소를 알려주는 교과’로서 인식한 집단에도 중요한 이미지로 유형화되고 있다. 가정교과의 이미지가 다양한 생활의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과이지만, 그러한 실습은 단순히 의식주의 단순기능 습득을 위한 실습이 아니라, 삶의 기본바탕이 되는 능력과 관련된 실습으로 구별하면서, 이 역시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으로서의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에서 가정학의 다양한 실습교육에 직면한 예비교사들은 그러한 다양한 의식주의 실습을 전통적 여성역할을 위한 교육이나, 수공훈련으로서가 아니라, 가정생활과 삶의 유지를 위한 기본적 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육으로서 내면화하여, 이미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교과에서 이러한 의식주와 관련한 내용이 단순기술의 습득이 아닌 삶의 능력으로서의 습득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 교과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과에 대한 견해의 표면적인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동일한 점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지력을 개발시키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박화윤 외 4인, 2001)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에서 유형화한 가정교과의 이미지로 ‘개인적 성숙을 강조하는 교과’, ‘사회의 적응을 도와주는 교과’로서의 이미지는 이러한 지력의 개발과 관련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가정교과를 배움으로써 가지게 되는 지력이란 개인이 가정과 사회의 성숙된 일원으로서 원활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해 담보되는 개인적 성숙과, 사회의 적응에 필요한 능력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교과에 대한 이미지는 가정교과가 가정생활에만 관련된 매우 협소한 영역을 다루는 교과가 아니라, 사회의 필요에 민감한 교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Thomas(1986)가 분류한 가족관리나 가족발달에 중심을 둔 견해와 어느 정도 유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정교과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다양한 논의와 때로는 격렬한 논쟁을 일으키는 현재의 가정교과교육학계에서 가정교과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이미지 유형화의 결과는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간의 행동은 사실적 지식이나 정보보다는 자신이 지각하는 이미지에 의해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김동기, 1982),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의 형성은 대상에 대한 보다 합리적 판단과 행동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교과에 대하여 가지는 이미지는 교과에 대한 필요성이나 흥미도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과교육의 정당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대상집단으로 설정한 이외의 집단- 가정교과의 전문가 집단, 가정교과를 현재 배우는 중등학교의 학생집단, 또는 일반인-을 대상집단으로 하여, 이들 집단이 가지는 교과에 대한 이미지 연구를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상집단의 다양한 설정은 각 집단이 가지는 가정교과에 대한 이미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여, 가정교과의 부정적인 이미지, 또는 강화해야 할 긍정적 이미지, 또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대안적 이미지의 구축을 위한 정보등을 탐구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우 필요하다. 또 교과의 이미지 유형화의 결과는 전문가 집단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교과의 성격, 또는 타교과와 구별되는 독자성의 강조를 위하여 고

려해야 할 것을 시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정교과의 성격이나 정당화를 위하여 매우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5가지로 유형화한 가정교과에 대한 이미지는 양적인 자료의 수집을 통하여 재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가정교과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혼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가정교과에 대한 이미지를 다양한 대상집단이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양적인 조사 연구는 가정교과의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탐구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의의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기순임·채정현(1998). 중학교 가정과 교사의 가정과요구에 대한 견해와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5), 187-201.
- 김동기(1982). **현대마케팅원론**. 박영사.
- 김동일(1991). **사회과학 방법론 비판**. 서울: 청람문화사. 69-85.
- 김범중(1999). Q 방법론의 이해와 소비자 연구에의 적용. **한국마케팅저널**, 1(3), 120-140.
- 김용익(2002). 중학교 학생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실과교과의 이미지 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4(4), 97-116.
- 김용익(2003).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의 눈에 비친 실과교과의 이미지.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6(1), 59-77.
- 김은영(1991). **이미지 메이킹**. 김영사.
- 김홍규(1990). 주관성(subjectivity) 연구를 위한 Q 방법론의 이해. **간호학논문집**, 6(1), 1-11.
- 김홍규(1996). Q 방법론의 유용성 연구. **주관성 연구**, 1, 15-33.
- 류철선(1996). 유치원 교사의 교사이미지 연구: Q-방법론적 접근. **유아교육연구**, 16(2), 125-141.
- 박미정(2006). **가정교과교육의 미래발전 전략 탐색; 정체성과 임파워먼트 및 비전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화윤외 4인(2001). **유아를 위한 창의적 교과교육**. 동문사.
- 송미승·한경임·박철수(2003). 재학생 관련 전공 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주관성 연구. **언어치료연구**, 12(2), 255-280.

- 오세정·김홍규(2006). 기업의 문화마케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연구. **주관성연구**, 12, 94-114.
- 왕석순(2003). 교과로서의 가정과교육의 목표 규명을 위한 문헌 고찰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5(2), 89-106.
- 윤은자(1996). 임상간호사의 전문간호 이미지에 관한 연구-Q 방법론적 접근. **주관성연구 Q 방법론 및 이론**, 1, 37-92.
- 윤지현(1997). '가정생활'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2), 143-160.
- 이규완(2002). **이미지 삼국지**. 들녘. 24-60.
- 이종이(1997). 가정과교사의 가정과교육의 일반적 성격에 관한 인식과 관련변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2).
- 이훈(1990). 해외여행자유화를 통한 세계 속의 한국 이미지 정립. **관광정보**, 64, 7-20.
- 조한혜정(2000). **학교를 찾는 아이 - 아이를 찾는 학교**. 또하나의 문화.
- 채정현·유태명·박미정(2007). 실천적 추론 가정과 수업이 중학생의 가정교과 인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1), 66-79.
- 최협(1991). **계량적 접근과 질적접근**. 박영사
- Daniel Yankelovich(1974). *Home economics image study: a qualitative investigation*. paper prepared for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Dennis, K. E.(1986). Q-methodology: relevance and application to nursing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3), 6-17.
- East, M.(1980). *Home economics; past, present, and future*. Allyn and Bacon, Inc.
- Kotler, P.(1981). *Principles of marketing*. Englewood prentice-Hall. 631.
- Lawson and Baud-Body(1977). *Lawson and Recreation Development*. 64.
- LeBleu, L. C. and Smith, F. M.(1994). professionals' perception of home economic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2(4), 422-440.
- McKeon, B. & Thomas, D.(1988). *Q-methodology: A SAGE university paper series 66*. The publishers of professional Social Sciences.
- Pnina, S. & Martin, A.(2007) Q-Methodology as a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Journal of the Society for Existential Analysis*, 18(1), 103-116.
- Thomas, R. G.(1986). Alternative views of Home Economics: implication for K-12 home economics curriculum.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4(2), 162-188.



## &lt;국문요약&gt;

본 연구는 가정과교육의 성격과 정체성, 그리고 미래 방향을 탐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교과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인 교과의 이미지를 유형화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인의 주관적 인식 경향을 객관화하여 유형화할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인 Q방법론을 활용하여 예비 가정교사를 대상으로 가정과교과의 이미지를 유형화 하였다. 그 결과 가정교과에 대한 이미지의 유형을 총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사회의 적응을 위한 교과’로서 인식하는 집단이다. 이 유형은 가정교과를 통해 개인이 사회의 성숙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능력이 길러지며, 미래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가정교과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집단이다.

두 번째 유형은 ‘편견으로 소외된 교과’로서 인식하는 집단이다. 이 유형은 가정교과는 다른 교과와 비교할 때 입시와 관련이 적고 취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직도 가정주부들의 일을 배우는 교과로 인식하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는 교과로 생각하는 집단이다.

세 번째 유형은 ‘삶의 기본요소를 알려주는 교과’로 인식하는 집단이다. 가정교과가 삶의 기본적인 요소를 가르쳐 주는 교과로 다양한 경험의 습득,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등과 관련된 교과로 인식하는 집단으로, 인간생활의 거의 모든 면을 다루는 교과로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과로 생각하는 집단이다.

네 번째 유형은 ‘가정생활을 강조하는 교과’로 인식하는 집단이다. 이 집단의 경우 가정교과를 전통적으로 가정교과가 담당하고 있었던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기술과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이러한 가정생활의 기술이 여성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한 분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 번째 유형은 ‘개인적 성숙을 강조하는 교과’로 생각하는 집단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집단은 가정교과가 개인의 성숙의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자질을 배양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본적인 인격수양과 바른 인성 그리고 위기대처 능력까지를 포함한 개인발달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능력을 키우는 교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문접수일자: 2008년 9월 17일, 논문심사일자: 2008년 9월 19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12월 9일